

HEADLINE NEWS

문화예술 거리 이벤트를 통한 도심 재활성화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市 도심의 문화예술 거리에서 제공하는 'First Friday' 프로그램이 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첫째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문화예술 거리에 산재한 40개 이상의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며, 방문객에게 와인과 치즈를 제공해 서로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필라델피아市 문화예술 거리는 10년 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도심 재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거리 주변의 빈 건물들이 상업과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도심 거주 인구도 늘고 있다.

필라델피아 문화예술 거리는 피츠버그 문화재단이 조성했는데, 재단은 매년 470억원의 예산으로 10개 주요 공연장과 4개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예술 거리를 더욱 확장해갈 예정이다.

(www.philly.com/mld/inquirer/classifieds/real_estate/12124109.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혼합 정책 시행 (시애틀)
- ② '뉴욕은 여성을 사랑한다(New York Loves Women)' 캠페인 실시 (뉴욕)

도시환경

- ③ 주차장 옥상에 도시 텃밭 조성 (보스턴)
- ④ 쓰레기 없는 시애틀 만들기 프로그램 시행 (시애틀)
- ⑤ 파트너십으로 운동화 재활용 프로그램 추진 (덴버)
- ⑥ 민간 건축물의 열섬 대책 가이드라인 작성 (동경)
- ⑦ 도시 열기를 식히는 물뿌리기 사업 시행 (동경)

도시교통

- ⑧ 주간 교통상황 예측 정보 제공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 ⑨ 통행거리에 비례하는 휘발유세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수행 (오리건주 포틀랜드)
- ⑩ 지하철 불법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개찰 시스템 도입 (보스턴)

사회복지·문화

- ⑪ 투병중인 어린이 환자 보육서비스 사업화 지원 (동경)
- ⑫ 장애인 차별 방지에 노력한 기업 표창 (오스틴)
- ⑬ 시민을 위한 여름밤 야외 무료 영화·음악제 개최 (오스틴)

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혼합 정책 시행 (시애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남동부에 있는 뉴홀리(NewHolly) 공영 재개발 주택단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혼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저소득층 공공 아파트단지를 철거하고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커뮤니티를 건설하고자 한 이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재개발 프로그램인 HOPE VI의 지원으로 추진되었다. 완공까지 10년이 걸린 이 주택단지는 약 478,000m²의 토지에 1,451세대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총 세대의 25%는 저소득층 주거로 할당되어 있다.

(www.seattleweekly.com/features/0528/050713_news_newholly.php)

② '뉴욕은 여성을 사랑한다(New York Loves Women)' 캠페인 실시 (뉴욕)

미국 뉴욕시는 2005년 3월, 제25회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 2005)'을 기념해, '뉴욕은 여성을 사랑한다(New York Loves Women)'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은 여성을 포함한 일반시민에게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 관련 정보를 주고 여성에 대한 인식도 높이기 위해, 뉴욕시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뉴욕시는 '뉴욕은 여성을 사랑한다(New York Loves Women)'는 슬로건 하에 시장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신문, 잡지뿐 아니라 버스 정류장, 공중전화 부스, 가로등 기둥에도 수백 개의 광고를 설치했으며, 여성기관, 문화기관, 교육기관 및 민간시설들도 '뉴욕은 여성을 사랑한다'는 슬로건을 새긴 배지를 시민에게 나눠 주었다.

(www.nyc.gov/html/cwi/html/home/home.shtml)

3 주차장 옥상에 도시 텃밭 조성 (보스턴)

미국 보스턴시 해리슨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은 1970년대에 조성되어 그동안 지역주민의 녹지공간과 텃밭으로 이용되어 왔다. 해리슨 거리 일대의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이 커뮤니티 가든은 시근린개발부서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의 주차장 옥상에 더 큰 규모로 조성된다. 커뮤니티 가든은 주민에게 녹지공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의 토지를 지역 주민에게 분양하여 각종 채소와 식물을 재배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www.boston.com/realestate/articles/2005/07/13/rooted_in_the_community)

4 쓰레기 없는 시애틀 만들기 프로그램 시행 (시애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2006년 1월부터 '쓰레기 없는 시애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쓰레기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보다는 쓰레기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공장, 사무실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시행중인 'Use It Again Seattle'(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이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Take It Back Network'(가전제품 제조업체나 소매업자들이 폐가전제품을 다시 수거해 가는 프로그램), 'Green Building'(에너지 효율적이고, 재활용 자원을 이용하는 건축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Seattle Post-Intelligencer, 2005. 7. 18, "Zero waste is Seattle's new garbage mantra")

5] 파트너십으로 운동화 재활용 프로그램 추진 (덴버)

미국 덴버市와 인근 카운티는 환경·자원 보호를 위한 재활용 운동 비영리단체인 전국재활용연합, 신발제조업체인 나이키社와 함께, 시민들이 신지 않고 보관하던 낡은 운동화를 수집했다. 나이키社가 주관한 이 운동화 재활용 프로그램에 덴버市도 참여하여 헌 운동화를 수집했다. 덴버市는 지정된 장소에서 시민들이 직접 가져온 헌 운동화를 수집하고, 수집된 운동화는 농구코트와 축구경기장 등의 바닥 포장재로 재활용된다. 1993년부터 시작한 나이키의 운동화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1,500만 켤레 이상의 운동화가 재활용되었으며, 재활용된 운동화는 전 세계 150개 경기장의 코트, 트랙, 필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denvergov.org/newsarticle.asp?id=8723)

6] 민간 건축물의 열섬 대책 가이드라인 작성 (동경)

일본 東京都는 지금까지 공공시설 중심으로 보수성 포장(保水性 舗装), 옥상녹화, 학교 잔디밭 조성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열섬 대책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등의 공동 과제로 인식되면서 민간 건축물도 열섬 대책의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東京都는, 민간 사업자나 시민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 지역의 열 환경에 대응한 열섬 대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열 환경 맵’, ‘동경 모델(지역 특성별 대책메뉴)’ 및 ‘건물 용도별 대책메뉴’ 등을 「열섬 대책 가이드라인」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열 환경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지역의 열 환경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열섬 대책 기술을 적극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5/07/20f71100.htm)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7 도시 열기를 식히는 물뿌리기 사업 시행 (동경)

일본 東京都는 열섬 대책 추진을 2005년도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여러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東京都는 치요다구(千代田區)와 협력하여 마루노우치 지역과 주변지역 도로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살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살수는 보수성 포장을 시공한 구간과 그 이외 일반 포장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東京都 토목기술연구소가 살수 효과를 검증한다. 살수용 물은, 하수를 고도처리한 재생수와 치요다구가 열섬 대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구립 시미즈다니(清水谷) 공원 내 우물물을 이용한다. 보수성 포장은 그 내부에 빗물 등 수분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포장으로, 비가 그친 후 수분 증발시 기화열로 노면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그 효과는 3일 정도 지속된다. 일반 포장 구간에서는 2005년 7월 21일~8월 31일, 보수성 포장 구간에서는 7월 21일~9월 3일에 걸쳐 살수가 실시된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5/07/20f7j400.htm)

8 주간 교통상황 예측 정보 제공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는 TV 뉴스 시간에 주간 일기에보를 보듯 TV에서 주간 교통상황 예측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한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전파를 탈 예정인 이 교통상황 예측 정보는 'Beat-the-Traffic'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과거 추세와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교통량 패턴이 주기적이라는 데 착안해 최근의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그 특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고와 같은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후 발생한 교통상황 변화 특성 또한 연구하고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LA, 애틀랜타 등 미국 내 19개 주요 도시에서도 이러한 교통상황 예측 방송을 실시하기 위해 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다.

(www.newscientist.com/article.ns?id=dn7605)

9] 통행거리에 비례하는 휘발유세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수행 (오리건주 포틀랜드)

미국의 오리건주는 차량의 실제 통행거리에 비례해 휘발유세 부과 방식을 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오리건 주립대가 수행하는 이 연구는 200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차량 280여대를 대상으로 실제 모의 실험에 착수해 기술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교통부와 연방도로교통국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01년 결성된 주정부 내 '도로 이용자 부담금' 태스크 포스팀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한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 중 선택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차량 주행거리는, 주유시 주유기에 장착된 장비가 차량 내 설치된 주행거리 기록장치를 원격으로 읽어들이어 산정하며, 직전 주유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세금을 포함한 요금을 휘발유 값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차량은 GPS와 같은 특수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주교통당국은 새 휘발유세 부과방식 도입을 통해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연비가 높은 차량 출시에 따른 휘발유세 수입 감소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gazettetimes.com/articles/2005/06/27/news/top_story/mon01.txt)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美) 지하철 불법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개찰 시스템 도입 (보스턴)

미국 보스턴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MBTA(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는 최근 지하철 개찰구에,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회전식 개찰구보다 좀더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개찰구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할 경우 경보를 울리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기존에는 없던 타이머를 설치해 승차권 하나(주로 정기권)로 2인 이상이 개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현재 이 새로운 개찰 시스템은 1개 노선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나 2005년 중 다른 노선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MBTA는 그동안 불법적인 무임승차로 매년 1,000만~1,600만 달러의 요금수입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MBTA의 2005년 재정적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news.bostonherald.com/localRegional/view.bg?articleid=93342)

(日) 투병중인 어린이 환자 보육서비스 사업화 지원 (동경)

일본 東京都는 아픈 아이를 위탁받아 돌보는 어린이 환자 보육서비스의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설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담은 안내서를 작성해, 시설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의사회, 민간사업자 등에 무상 배포해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동경에 살고 있는 여성이 생애에 낳는 자녀수는 1.0인으로 전국 최저이기 때문에 東京都는 자녀보육 세대를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어린이 환자 보육서비스 사업화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투병중인 어린이 환자 보육은, 아픈 어린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로부터 어린이 환자를 일시적으로 위탁받아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육소와 병원이 전용시설을 만들거나, 비영리조직이 보육 경험이 있는 주부 등을 조직하여 사업화한 사례가 있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615c3b1504x15.html)

장애인 차별 방지에 노력한 기업 표창 (오스틴)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1990년에 제정한 것을 기념해, 오스틴市 장애인위원회(Committe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는 'Austin Access Awards' 수상 후보자를 시민들로부터 추천받고 있다. 2005년 올해로 두 번째 맞는 Austin Access Awards는 오스틴에 소재한 공공편의시설이나 사업체 중 장애인 차별 방지에 노력한 기업의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뜻에서 만든 상이다. 미국 장애인법에 따르면, 공공편의시설에는 식당, 호텔, 극장, 쇼핑센터, 세탁소, 병원, 박물관, 놀이공원, 주간보호시설, 헬스장, 볼링장 등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市는 장애인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장애인 고객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사업체의 노력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애인 이용권 전문가들이 포함된 심사위원단이 Austin Access Awards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ci.austin.tx.us/news/2005/ada_access2005.htm)

시민을 위한 여름밤 야외 무료 영화·음악제 개최 (오스틴)

미국 오스틴에서는 시민을 위한 무료 야외 음악·영화 축제인 'Summer Movies and Music in the Park'가 2005년 6월 22일, 킬링(Kealing) 놀이공원에서 개막됐다. 이번 문화축제는 오스틴 공원·여가과와, 공공장소에서 독립영화 상영을 지원하는 단체인 'Austin Film Society'가 공동 후원했다. 오후 8시 음악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9시에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여름밤에 음악과 영화로 시민에게 즐거움을 준 이번 문화축제는 2005년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격주로 수요일마다 킬링 놀이공원에서 열렸다.

(ci.austin.tx.us/news/2005/summer_movies.htm)